



모죽지랑가 제2행 말의 생략법 연구

저자 (Authors)	양희철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23 , 1999.3, 19-36(18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3 , 1999.3, 19-36(18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Id=NODE00074446
APA Style	양희철 (1999). 모죽지랑가 제2행 말의 생략법 연구. 국어국문학, 123, 19-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9 11: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모죽지랑가」 제2행 말의 생략법 연구

양 희 철*

I. 서론

이 글에서는 「모죽지랑가」 제2행 말에서 발견되는 ‘憂音’의 생략법을 주로 다루면서, 이 생략법의 해명에 필요한 ‘居叱沙 哭屋尸以’의 향찰 해독도 함께 다루려 한다.

초기의 해독들은 ‘憂音(시름)’을 생략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다’ ‘-합니다’ 등등을 보충하였다¹⁾. 그런데 이 생략법은 문학적으로 해석될 기회도 없이, ‘시름’을 명사형 종결로 보거나 ‘-이여’의 생략으로 보는 해독들에 의해 거의 사장(死藏)되어 오고 있다. 이 후자의 해독들은 해당 행의 향찰 ‘-沙(사)’를 강세첨사로 보고, ‘以’를 지시관형사 ‘이’로 보고 있다. 그런데 ‘以’를 지시관형사로 본 경우들은 이미 문제가 지적되어 있고, 본론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향찰 ‘-沙’는 이제 더 이상 강세첨사로 해석되지 않고, 필요형 또는 필수 조건형 연결어미 ‘-어야’의 의미로 파악된다. 이런 해독의 변화들은 ‘시름’의 생략법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시름’을 생략법으로 처리한 기왕의 해독들은 어학적인 접근이기에, 문학적인 생략법의 측면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순하게

* 청주대 국문과 교수

1) 양주동은 “...‘시름’은 ‘시름ㅎ...’의 略語임으로”(1942:99)라 하면서, ‘시름’이 생략법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III장 2절인 ‘생략된 요소와 종류’에서 제시하겠지만, 많은 선행들도 이를 따른다.

‘시름’ 다음에 ‘-이여’ ‘-하다’ ‘-합니다’ 등등을 보충하여 해석하면서, 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하는 문제와, 왜 자신이 제시한 것 외의 다른 것을 보충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물론, 왜 생략하였는가 하는 문제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생략된 것을 보충하면서도, 그 생략된 것과 그 생략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두 문제들을, 문학적인 표현의 차원에서, 생략법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먼저 ‘…憂音(시름)’이 생략법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생략법이라면 그 생략된 것과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통사론과 수사학의 입장에서 정리하려 한다.

이때 생략된 것과 그 기능은 제1·2행의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하게 되는데, 제1·2행에는 아직도 문제를 포함한 향찰로 ‘居叱沙’와 ‘哭屋尸以’가 있어, 이것들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II. 생략법 검토를 위한 해독

『모죽지랑가』 제1·2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향찰은 ‘皆理米’ ‘毛冬’ ‘居叱沙’ ‘哭屋尸以’ 등이다. 이 중에서 ‘皆理米’는 ‘皆’의 훈 ‘다으’를 살린 ‘다으리미’²⁾로, ‘毛冬’은 부사 ‘모돌’³⁾로 그 해독이 해결된 듯하다. 그러나 나머지 둘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보이는데, 이 두 향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다음 장에서 다룰 ‘憂音(시름)’의 생략법을 이해할 수

-
- 2) ‘皆理-’는 오푸라에 의해 ‘다 다스리-’로 읽히고, 이것이 훈기문에 의해 ‘다리-’로 수정되었다. 이 ‘다리-’의 의미를 ‘다하다’ ‘달힘하다’ ‘속이달다’ 등의 어느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56:82). 그러나 이 세 의미는 미래추측의 선어말어미 ‘-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다-’의 고행은 ‘다으-’이며, 게다가 ‘달힘하다’ ‘속이달다’는 ‘皆’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양희철은 ‘다으리-’로 해독하고 그 의미를 ‘다일 것이-’ ‘다겠으-’로 잡고 있다.
 - 3) ‘毛冬’은 지현영(1947:13)에 의해 처음으로 부사 ‘몰’으로 해독되지만, 그 정확한 음형 ‘모돌’은 홍기문(1956:82)에 이르러서 확립된다.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居叱沙'의 해독

'居叱沙'의 해독에는, 먼저 '居'를 음만자 '거'나 '고'로 읽은 경우들이 있다. 이 해독들은 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두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⁴⁾. 그리고 '居'를 훈독자 즉 실의만자로 해독한 경우들도 있다. 이 해독들은 다섯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역시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⁵⁾. 그런데 이 다섯 유형 중에서 한 유형은 다시 검토할

- 4) 첫 번째 유형은 '居叱'을 '것' '꽃' '곳(所)' 등의 명사 의미로 해독한 경우들이다. 이에 '것이사'(오구라 1929), '거시사'(최남희 1996), '것사'(양주동 1942, 이임수 1982), '것사'(김상익 1974, 전규태 1976), '곧사'(것사, 김선기 1967), '곳'(꽃, 정영모 1965), '곳사'(곳사, 최학선 1985) 등이 속한다. 이 해독들은 바로 앞의 향찰 '毛冬'이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인 이상, '毛冬'을 관형사로 보고 '居叱'을 명사로 해독할 수 없는 문제를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거슬다(逆)'의 의미로 해독한 경우들이다. 이에 속한 해독들에는 '거스사'(정영찬 1972) '것사'(김형춘 1989) '거슬사'(유창균 1994) 등이 있다. '거스'는 '-사' 앞에서 '거슬-'이 아닐까 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김완진 1980:56) 있다. 이 지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거슬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해독들은 다음의 세 번째 유형에서 정리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거즈/거스(在-)'의 의미로 해독한 경우이다. '거즈사'(강길운 1995)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는 '毛冬'을 '못'의 의미인 '물통'로 읽고서도 정작 문맥에서는 '안 계시어'와 같이 '안'의 의미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를 보인다. 또한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앞의 두 번째의 해독들과 더불어 두 가지 문제들도 포함한 듯하다. 하나는 다른 곳에서 'ㅅ'으로 통일되는 '叱'을 '스' '즈' '슬' 등으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이 해독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를 표현하려 하였다면, 향찰의 운용법이 보여주는 의주음조(義主音助)에 따라, '逆'이나 '在'를 훈독자 즉 실의만자로 이용하지, 왜 '居叱'과 같이 한자음을 이용한 음자들로 표현했느냐 하는 문제에 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5) 본문에서 다룬 유형인 '앗사' '아즈사' 등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의 문제점을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기스샤'(김완진 1980) '깃샤'(양희철 1996) 등이다. 이 해독들은 '깃-(棧)'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居'에 '棲'의 의미가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잇사'(지현영 1947, 김준영 1964, 임국현 1989) '잇/머트사'(신재홍 1996) 등이다. 이 해독들은 만약 '잇-(有)'을 표현하려 했다면, 이 작품에서 보이는 '有叱下'와 같이, '有叱-'을 택했을 것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세 번째 유형은 '거시샤'(금기창 1993) '게실샤'(이도흠 1998:158) 등이다. 이 두 해독들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잇다'의 높임말에 해당하는 '거시-/게시-'를 '居'가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居'에는 높임의 의미소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叱(ㅅ)'을 살려 읽지 않거나 '-르-'로 읽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해독하였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왕의 설명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 해독의 가능성까지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 바로 ‘앗사’(서재극 1974, 신석환 1987) ‘아즈사’(신동훈 1990) 등의 해독이다. 이 해독들에 제기된 문제는 다음의 셋이다.

- 1) 어간에 강세첨사 ‘사’의 연결이 가능한가?(김완진 1980:56~57).
- 2) 어간에 붙는 ‘-사’는 ‘-어아(필요형)’로 주어진 문맥이 맞지 않는다(강길운 1995:126).
- 3) ‘앗다’의 경우에 ‘-ㄴ’ 앞에서 ‘ㄴ’은 ‘ㅅ’이 되나, ‘-ㅅ’ 앞에서도 ‘ㄴ’이 ‘ㅅ’이 되는가?(유창균 1994:138~139).

1)의 문제는 “溼槃에 어서 드사 허리로다”(『석보상절』 十三 58), “내 죽사 허리로다”(『삼강행실도』 烈 5), “게을리 마라사”(『경민편언해』 18), “山林에 구선술이야 곳이 잇사 저 보라”(『청구영언(오씨본)』 p.89) 등의 ‘드사’ ‘죽사’ ‘마라사’ ‘잇사’ 등에서 보이는 ‘어간+사’들에 의해 해소되었다. 이 1)의 문제를 해결한 강길운은 이어서 2)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2)의 문제는 문제 제기자가 해당 문맥을 “뭇들(>뭇) 거즈사 (>겨시어) 울을 이 시름”으로 잡았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 즉 ‘뭇’과 ‘겨시어’의 문맥 연결에서, ‘뭇’에 ‘안’의 의미가 없는 한,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居叱沙’를 ‘거즈사’ 외의 다른 것으로 해독할 때는, 문맥이 잘 통한다는 사실을 이어서 볼 ‘居叱沙’의 해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3)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앗-’을 주장한 서재극이나 비판자인 유창균 모두가 ‘-ㄴ’ 앞의 ‘앗-’만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앗-’의 예는 ‘-ㄴ’ 앞을 제외하면, “겨우 앓다”(剛坐, 『박통사언해』(중간) 單 1)만이 존재한다. 이 정도의 자료들로만 보

때에 이 해독자들은 이 앞의 ‘毛冬’을 ‘모똥’로 읽고서도, 그 의미를 ‘똥’이 아니라 ‘안’으로 잡거나(안 계실사, 이도흠 1998:158), ‘안’의 의미로 보지 않으면 어색한 문맥을 보이기도 한다(살아서 오래 계시지 못하시어 우는 이 시름, 금기창 1993:53). 네 번째 유형은 ‘사르샤’(홍기문 1956) ‘술스’(이 탁 1956) ‘사설사’(정창일 1987) ‘사르샤’(황패강 1991) ‘살사’(이도흠 1998:134) 등이다. 이 해독들에서도 ‘ㅁ’(ㅅ)을 살리지 못한 문제를 보인다.

면, ‘-사’ 앞에서 ‘앉-’이 ‘앗-’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논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한계 때문에 ‘앉-’까지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居叱沙’를 ‘앗사’로 읽으려는 시도는 ‘居’의 ‘坐’라는 의미와 ‘-叱沙’의 ‘-사’라는 음을 살려서, 그것도 ‘-叱(入)-’을 ‘잇-’의 음절말 자음첨기로 읽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와 음을 살려서 읽는 방법으로, ‘-叱(入)-’을 ‘잇-’의 음절말 자음첨기로 읽은 ‘앗사’ 외에, ‘-叱(入)-’을 사이 시옷 또는 경음부호로 쓴 ‘안사’ ‘안싸’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앉-’의 ‘ㅈ’이 ‘ㅅ’이 되어 ‘안’ 다음에 표기되거나, 그 다음의 초성에 결합되어 표기된 중세어와 향찰은 다음과 같다.

안사(實坐, 『한청문감』 198 a, 『동문유해』 25), 안싸(澄下去, 『한청문감』 28 d, 『역어유해』 上 40, 『삼역총해』 五 23) 안싸나(『석보상절』 十九 5), 안쇼(『석보상절』 十一 1, 『벽은신방』 3), 안씨톨(『소학언해』 二 10), 안편(『속삼강행실도』 孝 6), 안씨(『석보상절』 六 10), 안ㅈ북시니(『월인천강지곡』 46).

업사곤(無叱昆, 「수회공덕가」), 태평한음사(太平根音叱如, 「안민가」), 난임사답(出隱伊音叱如支, 「참회업장가」), 좃호우임사(逐好友伊音叱多, 「상수불학가」).

이 표기들로 볼 때에, ‘居叱沙’는 ‘앗사’의 표기가 아니라, ‘안사’나 ‘안싸’의 표기라 할 수 있고, 이 표기는 ‘居-’의 ‘앉-’이라는 훈과 ‘-叱沙(사)’의 음을 충실하게 살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사’는 앞의 ‘드사’ ‘죽사’ ‘잇사’ 등의 ‘-사’에서 발견되는 필요형 또는 필수 조건형의 연결어미로, 현대어의 ‘-어야’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안사/안싸’는 현대어 ‘앉어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사/안싸’에서 ‘앉-’의 의미는 그 설명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 ‘앉-’을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의미들로 이해하면 작품의 해당 문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魔王 波旬이 큰 德을 새오스바 앓디 몬흐야 시름흐더니』(『월인천강지곡』 22)를 통해 서재극(1974:56)이

예증하듯이, ‘앉-’에는 ‘편안’ ‘安定’의 의미가 있다. 게다가 한자 ‘居’에는 ‘安住長養’의 의미가 “度地以居民”(『예기』 王制)에서와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오는 다음의 ‘居’들은 ‘앉다’의 의미로 흔히 해석되고 있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安住’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予以眇躬居上 不能養民 使老幼至於此極(『삼국사기』 「유리니사금」조)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삼국사기』 「신문왕」조)

有神人來請 宜住此地 乃置錫杖於前 指其地曰 此下有八面七級石塔 掘之果然 因立精舍 曰靈塔寺 以居之(『삼국유기』 「고(구)려영탑사」조)

앞의 두 인용의 ‘居’는 흔히 ‘앉아’로 해석되고 있다.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성을 양육할 수 없고” “헌장을 함부로 흐리게 하는” 이유는 왕위와 재상의 자리에 앉음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왕위와 재상의 자리에 앉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居’들은 흔히 ‘앉아’로 해석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安住’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용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居’는 기왕의 해석(권상로)에서 ‘안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居此沙’를 ‘안사/안싸’로 읽고 그 뜻은 ‘안주하여야’로 잡는다.

2. ‘哭屋尸以’의 해독

‘哭-’은 ‘울-’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屋-’의 해독은 다양하다.

- 6) ‘屋’에 대한 기왕의 해독들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먼저 ‘움’으로 읽고, ‘울다’를 체언형으로 만드는 접미사(정철모 1965)로 보는 경우는, ‘屋’의 음이 ‘옥’으로 ‘움’의 출처에서 문제를 보인다. ‘막’로 읽은 경우(김완진 1985)는 만약 ‘(울어) 말라 버리(ᄃᆞ)’를 표기하려 했다면, 주장자의 주장인 훈주음종에 따라 ‘斃’이나 ‘燥’로 쓰지 않은 문제에 답할 수가 없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우’로 읽는 것은 같다. 그러나 그 해석에서는 장음표기(양주동 1942, 이 탁 1956, 김상익 1974, 전규태 1976), 의도법 선어말어미(서재극 1974, 신재홍 1996), 매개모음(이명수 1982), 대상범어미(금기창 1993), 인칭법의 선어말어미(유창균 1994), 한정법 선행어미(강길운 1995) 등으로 서로 다르다.

이 다양한 주장들은 크게 보면, '-오-'를 둘러싼 이승녕과 허용의 논쟁의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아직도 명확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주장을 따라도 문맥의 커다란 의미가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尸(-)'는 '-르(-)'로 읽힌다. 이 '-르(-)'을 벗어난 해독들도 있으나, 그 해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르(-)'로 읽은 기왕의 해독들을 보면, '장음표기나 대격으로 볼 수 없거나)', '이'를 지시관형사 '이'로 볼 수 없거나)', '-르'를 현재시제의 동명사형어미로 볼 수 없다⁹⁾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앞서의 해독(양희철 1996, 1997)에서와 같이 미래시제의 동명사형어미로 본다.

이번에는 '-이'의 해독을 보자. 우선 '이'의 음이나 훈을 모두 벗어난 경우로 '-어'(연결어미)의 해독이 있다¹⁰⁾. 이는 해독이 아니라 문맥에 맞춘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이외의 해독들은 일곱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두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 1) 부사형 '-ㅣ'로 본 유형이다. 이 경우는 '뜻'을 '哀'의 의미로 처리하거나 '-ㅣ'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서'나 '-는'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¹¹⁾.

- 7) 장음으로 본 경우(양주동 1942, 이 탁 1956, 전규태 1976)는 모음이 아닌 자음 '-尸(르)'로 '울-'의 장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격으로 본 경우(정열모 1965)는 사실 '우르물베'로 읽고 그 뜻을 '울음으로'로 잡는 것을 보면, 대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8) 현재시제의 관형사형어미 '-는'으로 본 경우(김준영 1964, 금기창 1993)와, 미래시제의 관형사형어미 '-르'로 본 경우(김완진 1980, 강길은 1995, 신재홍 1996, 유창균 1994:164)가 있다. '-르'는 현재시제나 미래시제의 관형사형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이'를 지시관형사 '이'로 처리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뒤에 보겠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 9) '-르'를 현재시제의 동명사형어미(ㄹ)로 본 경우(홍기문 1956, 서재극 1974, 신석환 1987, 유창균 1994:89)가 있다. '-르'는 미래시제의 동명사형어미로 '-ㄹ'과 구분된다. 그런데도 현재시제의 동명사형어미 '-ㄹ'으로 해석한 것은 그 다음의 '-이'를 '-이'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이)'를 공동격으로 파악하여 해당 문맥을 '울음과 시름'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이(이)'를 공동격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르'이 현재시제의 동명사형어미로 쓰인 예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은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 10) 오후라(1929) 유창선(1936) 이 탁(1956) 최화선(1985) 등이 이에 속한다.

- 2) 공동격 '-어'로 본 유형이다¹²⁾. '-어'는 공동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한결 같이 '-어(=과/와) 곤/굴-'의 형태를 취한다. 그런데 앞의 '哭屋尸以 鬻音'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 공동격의 해석은 문제를 보인다.
- 3) 연결어미 '-어'의 의미를 가진 '-어'로 본 유형이다¹³⁾. '-어'가 연결어미 '-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보인다.
- 4) 지시관형사 '이'로 본 유형이다¹⁴⁾. '이'를 지시관형사 '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우선 "비록 한자적 의미로 '이'에 지시대명사적인 '이'가 겸유(兼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향가에서의 용법으로 보면 그 자리에 쓰이는 것이 압도적으로 '此' '是'요 '이'가 아니라는 점"(김완진 1980:58)이다. 게다가 지시사 '이'로 흔히 쓰이는 '是'가 '下是'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가 지시사 '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此'의 전와(轉訛)로 추측하여 해독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본 '居叱沙'의 '-沙(사)'가 강세참사가 아니라 필요형 또는 필수 조건형 연결어미라는 점에서, '이'도 더 이상 '이'가 될 수 없다.
- 5) '빠'로 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조어와 의미상 문제를 보인다¹⁵⁾.
- 6) 조격(造格) '-로'로 본 유형이다¹⁶⁾.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
- 11) 이 경우에는 '哭屋尸+이'를 '우리'(설이:서럽게, 양주동 1942), '우울이'(울어서, 정연찬 1972), '우리'(서럽게, 김상익 1974), '울이'(우는, 전규태 1976) 등으로 읽고, 그 뜻을 괄호안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설이:서럽게), '우리'(서럽게)의 두 경우에는 '哭'을 '울-'로 해독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의 파악에서는 '哭'의 사전적 의미에도 없는 '哀' '苦' '慟' 등의 훈인 '쉽-'의 의미로 잡고 있다. 이는 '-이'를 '-이'(부사형)로 해석하면서 문맥에 맞지 않자 수정한 것으로, '-이'(부사형)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우울이'(울어서), '울이'(우는)의 경우는 '-이'를 '-어'로 해독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 '-어'가 '-어'서'나 '-는'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보인다.
 - 12) 홍기문(1956:79)과 서재극(1974)이 이 유형을 취한다.
 - 13) 엄국현(1989) 김형춘(1989) 황폐강(1991)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 14) 지현영(1947), 김준영(1964), 김선기(1967), 김완진(1980), 이임수(1982), 금기창(1993), 강길운(1995), 신재홍(1996), 최남희(1996) 등이 이에 속한다.
 - 15) 정열도(1947)가 보인 '-빠'는 '새우르물빠'(새의 울음으로, '새+울음+을(대격)+빠')에 나타난 것인데, '으로+빠'는 가능해도, '을(대격)+빠'는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보인다. 그리고 정창일(1987)의 '-빠'는 '웃브힐빠 시름아'(울어야할 시름이여)에 나타난 것인데, 고어로의 해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고어가 어떤 근거에서 괄호안의 현대어로 옮겨지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 16) 이 유형은 정연찬(1972)이 제2안으로 제시한 것을 신석환(1987)과 유창균(1994)이 취한 것이다.

아니지만, 유관한 언급으로, 그 다음의 시어 ‘憂音’과의 연결에서, ‘시름하여 운다’와 ‘시름으로 운다’는 가능해도, ‘울어 시름한다’나 ‘울음과 시름’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다(김완진 1980:58). 이로 보면 ‘울음으로 시름하-’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음으로 시름을 달랠니다’(신석환 1987)와 ‘울음으로 지내는 시름이여’(유창균 1994)는, ‘哭屋尸’가 미래시제의 동명사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울 것으로 시름을 달랠니다’나 ‘울 것으로 지내는 시름이여’는 의미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

- 7) 방향적 ‘-로’로 본 유형이다(양희철 1996). 이 경우는 ‘울음로(의) 시름의 -의’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그 의미를 ‘끝내는 울 것으로 가는 시름’ 또는 ‘끝내는 울 것이 되는 시름’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로’ 다음에 오는 ‘-의’의 생략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왕의 주장 어느 것을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로’를 원인격으로 바꾸어 해석한다. 원인격의 ‘-로’는 ‘병으로 걸근했다’, ‘자동차 사고로 늦었소’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에 기초하여 ‘哭屋尸 憂音’을 ‘울음로 시름’으로 해독하고, ‘울 것으로 인해 시름’ ‘울 것 때문에 시름’ 등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 해독의 옳고 그름은 다음장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Ⅲ. ‘憂音’의 생략법

앞장에서 살핀 향찰의 해독들은 이 장에서 밝히려는 생략법의 기능과 그 생략된 것들을 밝히는 데에 필요한 선행 작업이었다. 이제 ‘憂音(시름)’의 생략법을 정리해 보자.

1. 생략 유무의 판단

‘憂音(시름)’에 생략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보자. 이 생략 유무를 기왕의 연구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가 없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견들을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변증하면서, 생략 유무를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감탄형 명사 또는 감탄형 ‘-이여’의 생략으로 처리한 경우들을 보자. 감탄형 명사로 보는 것은 홍기문(1956)에서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으며¹⁷⁾, 감탄형 ‘-이여’의 생략으로 보는 것은 지현영(1947)에서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다¹⁸⁾. 그런데 이 주장들은 ‘以憂音’ 앞의 향찰 ‘-尸’를 ‘-ㄹ’로 해독하고 그 의미를 ‘-ㄴ’ ‘-ㄹ’ 등의 관형사형어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까지 해독한 것을 정리하면, ‘시름’에 걸리는 관형사는 없으며, 주어진 문맥은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것으로 인해) 시름”이 된다. 이 문맥에 감탄형 명사 또는 감탄형 ‘-이여’의 생략을 적용하면, 문장들이 상당히 어색하다. 이 어색함은 우선 ‘-이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이여’가 표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의미상 변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여’는 그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어색함은 ‘...시름’ 다음에 접미사의 어간과 어미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한 예로 접미사 ‘-한다’를 첨가하여 보면, 이 문맥은 문법적이다. 이 문법성은 통사론적으로 보아, “간 봄 다으리미 모돌 안사사(/안싸) 울올로 시름”의 ‘안사사’에서 보이는 ‘-사’라는 연결어미와 ‘울올로’라는 부사의 기능들에 근거한다. 연결어미는 용언과 용언의 연결에서 앞의 용언의 어간에 붙는다. 이에 따라 ‘-사’라는 필요형 또는 필수 조건형의 연결어미는 그 기능상 그 다음의 문장에 용언이 온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앞에서 한 예로 살폈듯이, “...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 시름한다”와 같이 ‘-여야’의 연결어미 이후에 ‘시름한다’의 용

17) 김선기(1967), 전규태(1976), 김완진(1985), 이임수(1982), 금기창(1993), 강길운(1995), 신재홍(1996) 등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18) 김준영(1964), 정창일(1987), 유창균(1994) 등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언을 가진 문장은 매우 문법적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름’은 접미사 이하가 생략된 용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올로’라는 부사는 용언을 수식한다. 그런데 이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할 위치에 ‘시름’이 와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시름’은 접미사 이하가 생략된 용언이라 할 수 있다.

2. 생략된 요소와 종류

이제 ‘시름’에서 생략된 접미사 이하를 정리해 보자.

1) ‘-하-’ ‘-겹-’의 접미사의 어간

기왕의 연구들은 ‘시름’ 다음에 생략된 접미사의 어간으로 ‘-하-’를 비롯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 외의 것들로 ‘시름 끼치었나이다’, ‘시름을 나타낸다’, ‘시름을 달랠니다’ 등이 있다¹⁹⁾. 그런데 이 세 경우들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맥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으로 인해(/것 때문에) 시름”의 ‘시름’ 부분에 앞의 세 경우들을 넣어 보면, 문맥이 상당히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시름’에 생략된 접미사의 어간을 ‘-하-’로 잡은 경우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는 ‘시름한다’(오쿠라 1929)와 ‘시름ㅎ...’(양주동 1942:99) 이래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 시름한다”와 같이, 그 문장에서 문법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시름’에 생략된 접미사의 어간은 우선 ‘-하-’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시름겹다’와 ‘시름없다’의 가능성을 보자. 이 두 용언들을 주어진 문맥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것으로 인해) 시름”의 ‘시름’에 넣어 보면, 문장이 문법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3행 이하가 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시름없다’의 경우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시름’에

19) ‘시름 끼치었나이다’는 이 탁(1956)에 의해, ‘시름을 나타낸다’는 정열모(1965)에 의해, ‘시름을 달랠니다’는 신석환(1987)에 의해 각각 제안되었다.

생략된 접미사의 어간으로 '-하-' 외에 '-겹-'도 있음을 정리할 수 있다.

2) 겹양의 선어말어미

'시름하-' '시름겹-' 등의 용언어간 다음에 생략된 선어말어미로 겹양과 비겹양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선학들이 항목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오희라(1929), 양주동(1965:878), 김상익(1974), 최학선(1985) 등에 의해 제시되거나 추종된 '시름하-'에는 겹양의 선어말어미가 없다. 이에 비해 정연찬(1972), 서재극(1974), 엄국현(1989), 김형춘(1989) 등에 의해 제시되거나 추종된 '시름합-'에는 겹양의 선어말어미 '-ㅁ-'이 있다. 이 겹양의 선어말어미의 유무는 '시름하-'의 어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름겹-'의 용언어간에서도 가능하다. 이를 주어진 문맥에서 확인하면,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것으로 인해) 시름겹습니다"와 같이, '시름겹다'를 '시름겹습니다'로 바꾸어도 문장은 문법적이다. 이로 인해 겹양의 선어말어미는 '시름하-' '시름겹-' 등에서도 생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술형·의문형·감탄형의 종결어미

기왕의 연구들은 '시름-'의 생략된 용언에 오는 어미로 '-다'와 여타를 보여주고 있다. 여타의 것들로는 '시름하는데'와 '울며 시름하다니'²⁰⁾의 '-는데'와 '-다니'가 있다. 이 해석에 대한 판단은 제3·4행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3·4행은 시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보아 '-는데'나 '-다니'의 연결어미의 생략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나머지 해석들은 서술형 종결어미 '-다'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 서술형 외에도 의문형과 감탄형의 종결어미도 가능하다. 이를 주어진 문맥에 넣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20) '시름하는데'는 양주동(1965:878)과 김상익(1974)에서, '울며 시름하다니'는 최학선(1985)에서 보인다.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것으로 인해)
 1)시름한다. 2)시름겹다. 3)시름하는가? 4)시름겨운가? 5)시름하는구나!
 6)시름겹구나! 7)시름합니다. 8)서름겹습니다. 9)시름합니까? 10)시름겹
 습니까? 11)시름하옵는구나! 12)시름겨웁구나!)

위의 문장들 중에서 ['시름하/시름겹'+겸양의 선어말어미+감탄형 종
 결어미]의 단어를 제시하려한 11)·12) 등이 확립하는지는 좀더 검토를
 요하여, 이하의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나머지 열 문장들은 확실
 히 문법적이다. 이로 인해 '시름하-' '시름합-' '시름겹-' '시름겹습-' 등
 예는 서술형 종결어미 '-다', 의문형 종결어미 '-까?' '-는가?',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등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함축의 기능

'시름'의 생략법은 생략된 부분을 생략하지 않았을 때는 동시에 표현
 할 수 없는 풍부한 내용들을 함축하는 기능을 가진다. 먼저 접미사의
 어간 차원에서, '시름'에 생략된 '(시름)하-'와 '(시름)겹-'의 두 접미사의
 어간을 함축한다. 이 '시름하-'는 동사로 시적 자아가 걱정하고 근심하
 는 마음의 동작을 뜻하며, '시름겹-'은 형용사로 시적 자아가 걱정하고
 근심함이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작품의 '시름'은 그 접미사의 어간들을 생략함에 의해, '시
 림하-'와 '시름겹-'을 함께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겸양의 선어말어미의 차원을 보자. '시름하-'와 '시름겹-'
 이하는 겸양의 선어말어미가 있는 겸양법과 그렇지 않은 평대법(平待
 法)으로 양분된다. 이는 앞에서 설정한 1)~10)으로 보면, 겸양법이 쓰
 인 것은 7)~10)이고, 평대법이 쓰인 것은 1)~6)이다. 이는 분명히 한
 단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없는 겸양법과 평대법을 함께 표현한 함축
 이다. 이 겸양법은 작품에서 의문형과 결합하여 시적 청자를 죽지랑으
 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평대법은 작품에서 의문형과 결합하여 자문과 자

탄의 성격을 보이면서 시적 청자를 시적 자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이 함축한 겸양법과 평대법은 이 작품의 시적 청자로 죽지랑과 시적 자아를 동시에 포함하는 함축성을 가진다. 이 두 시적 청자는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두 텍스트들, 즉 죽지랑을 시적 청자로 하는 텍스트와 시적 자아 자신을 시적 청자로 하는 텍스트를 함축하는데, 이는 이 작품의 제3~8행까지를 모두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면상 그 가능성의 제시로 논의를 한정한다.

다시 종결어미의 차원을 보자. ‘시름’ 이후에 생략된 종결어미는, 앞의 1)·2)·7)·8)에서 보이는 서술형, 3)·4)·9)·10)에서 보이는 의문형, 5)·6)에서 보이는 감탄형 등의 세 종류이다. 이 세 종결어미들을 비생략법에서는 결코 한 단어로 동시에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름’의 생략법에서는 종결어미의 생략에 의해 세 종류의 종결어미를 동시에 표현하는 함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세 종결어미들은 제1·2행의 의미들에서도 대단한 함축성을 가지는데, 이를 앞에서 정리한 1)~10)의 문장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진 문맥 “간 봄이 다일 것이매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것으로 인해) 시름”의 ‘시름’에 1)시름한다, 2)시름겁다, 7)시름합니다, 8)시름겁습니다 등을 놓고 보면, 시적 자아는 간 봄이 다일 것 이므로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 시름하고 시름겨운 자기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같이 시적 자아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서술하지만, 1)·2)는 시적 청자를 시적 자아 자신으로 하여 평대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7)·8)은 시적 청자를 죽지랑으로 하여 높히면서 자신의 처지를 죽지랑에게 사된다.

다시 주어진 문맥의 ‘시름’에 3)시름하는가? 4) 시름겨운가? 9)시름합니까? 10)시름겁습니까? 등을 놓고 보면, 시적 자아는 간 봄이 다일 것 이므로 안주하지 못하여야 울 것 때문에 시름하고 시름겨운 시적 자아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의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문은 3)·4)에서는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으로 나타나고, 9)·10)에서는 죽지랑에게 묻는 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어진 문맥의 ‘시름’에 5)시름하는구나! 6)시름겁구나! 등

을 놓고 보면, 시적 자아 자신으로 향한 자탄(自歎)으로, 자신이 앞으로 올 것 때문에 지금 시름하고 시름겨운 것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략된 종결어미는 그 앞까지의 모든 문장성분들과 함께 함축의 기능을 보여준다. 즉 시름하고 시름겨운 자기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서술형 종결어미를 통한 스스로의 확인과 죽지랑에게 알림,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과 죽지랑에게 묻는 타문,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한 스스로의 탄식 등을 하나로 함축한다. 생략되지 않은 종결어미들은 그 종결어미에 따라 각각의 의미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시름'에서 보이는 생략된 종결어미는 앞의 세 종결어미가 보여주는 풍부한 내용을 함께 함축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모죽지랑가」의 제2행 말의 '憂音'에서 발견되는 생략법을 다루면서, 이것의 해명에 수반되는 '居叱沙 哭屋尸'의 향찰 해독도 함께 다루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居叱沙'는 '안사'나 '안싸'로 해독되며, 이런 표기 형태는 중세의 한글은 물론 향가의 향찰에서도 발견된다. 이 '안사'나 '안싸'의 의미는 '안주하여야'인데, '안사-(居叱)'의 원형인 '앉-'을 뜻하는 한자 '居'가 '안주(安住)'의 의미를 가지는 예는 한문사전은 물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居'에서 확인된다.

2. '哭屋尸'는 '울울로'로 해독되며, '울울로'에서 '-울-'의 '-ㄱ-'은 미래시제의 동명사형어미이고, '以(로)'는 원인격의 격어미이다.

3. '憂音(시름)'에서 문제가 되는 생략의 유무는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판단된다. '안사/안싸(居叱沙)'의 '-사(沙)'는 현대어 '-어야'에 해당하는 필요형 또는 필수 조건형의 연결어미로 그 기능상 그 다음에 용언

이 와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울울로'의 부사가 수식할 용언이 '시름'이라는 점에서, 이 '시름'은 용언의 접미사 이하가 생략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시름'에 생략된 요소들은 접미사 어간, 겸양의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등이다. 생략된 접미사 어간의 종류에는 '-하-'와 '-겁-'이 있고, 생략된 선어말어미의 종류에는 '-습/ㅁ-'의 겸양과 평대가 있으며, 생략된 종결어미의 종류에는 '-다'의 서술형과 '-까?' '-는가?'의 의문형과 '-구나!'의 감탄형이 있다. 그리고 단어로 보면 앞의 요소와 그 종류들이 결합된 12형태들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시름'에서 파악된 생략법의 기능은 풍부한 내용의 함축이다. 이 함축은 접미사의 어간, 선어말어미, 종결어미의 세 차원에서 정리된다. 접미사의 어간 차원에서는 '(시름)하-'와 '(시름)겁-'의 두 의미를, 선어말어미 차원에서는 겸양과 평대의 두 의미를, 종결어미 차원에서는 서술형 의문형 감탄형 등의 세 의미를, 각각 함축한다.

6. 선어말어미의 생략에 의해 함축된 겸양과 평대는 이 작품의 시적 청자로 죽지랑과 시적 자아를 동시에 함축하고, 이 함축은 죽지랑을 시적 청자로 하는 텍스트와 시적 자아 자신을 시적 청자로 하는 텍스트를 암시한다.

7. 종결어미의 생략에 의해 함축된 내용은, 시름하고 시름겨운 자기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서술형 종결어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함과 죽지랑에게 알림,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 스스로 자문함과 죽지랑에게 타문함,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 스스로 탄식함 등등이다.

6에서 언급한 두 텍스트의 확정과 이에 기초한 작품의 구조, 그리고 7에서 언급한 확인·알림·자문·타문·탄식 등의 언표내적 의미들은, 이 작품의 제3~8행을 좀더 검토한 이후에나 그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므로, 원고를 달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姜吉云(1995), 『鄉歌新解讀研究』, 學文社.
- 琴基昌(1993),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太學社.
- 金尙憶(1974), 『鄉歌』, 韓國自由教育協會.
- 김선기(1967), 「다마로기 노래」, 『現代文學』 146, 現代文學社.
- _____(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 鄉歌新釋』, 普成文化社.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출판부.
- _____(1985), 「慕竹旨郎歌 解讀의 反省」, 『國語學論叢(金炯基先生八旬紀念論文集)』, 創學社.
- 金俊榮(1964), 『鄉歌詳解』, 教學社.
- _____(1979),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 金炯春(1989), 「慕竹旨郎歌」解讀, 『昌原專門大論文集』 7, 昌原專門大學.
- 徐在克(1974), 「慕竹旨郎歌 研究」, 韓國語文學會 편, 『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學(韓國語文學大系 1)』, 螢雪出版社.
- 신동훈(1990), 「慕竹旨郎歌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冠嶽語文研究』 15, 서울대.
- 申碩煥(1987), 「慕竹旨郎歌의 分析的 研究」, 『士林語文研究』 4, 창원대 ; 「慕竹旨郎歌의 表記法 檢討」, 『論文集』 9-1, 창원대학.
- 申載弘(1996), 「鄉歌 難解句의 再解釋(3):慕竹旨郎歌」, 『先淸語文』 24,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 梁柱東(1942), 『古歌研究』, 博文書館.
- _____(1965), 『增訂古歌研究』, 一潮閣.
- 楊熙喆(1996), 「<慕竹旨郎歌>의 解讀」, 『人文科學論集』 15, 淸州大 人文科學研究所.
- _____(1997),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학사.
- 엄국현(1989), 「慕竹旨郎歌 研究」, 『仁濟論叢』 5-1, 인제대.
- 유창균(1994),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 劉昌宣(1936), 「新羅의 鄉歌解釋」, 『新東亞』 6-5, 新東亞社.
- 李 鐸(1956), 「鄉歌新解讀」, 『한글』 116, 한글학회.

- 李都欽(1998),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韓國詩歌研究』 3, 한국시가학회.
- 李壬壽(1982), 「慕竹旨郎歌를 다시 봄」, 『文學과 言語』 3, 문학과 언어 연구회.
- 이창식(1998), 「모죽지랑가」, 임기중 의, 『一庸林基中先生還曆紀念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 임기중(1994), 『사로 읽는 노래문학』, 화동.
- 全圭泰(1976), 『論註 鄉歌』, 정음사.
- 鄭然榮(1972), 「鄉歌解讀一斑」, 金烈圭 鄭然榮李在銑 公저,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西江大 人文科學研究所.
- 정열모(1947), 「새로 읽은 향가(鄉歌)」, 『한글』 99, 한글학회.
- _____(1965),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鄭昌一(1987), 『鄉歌新研究』, 새종출판사.
- 池憲英(1947), 『鄉歌麗謠新釋』, 正音社.
- 崔南熙(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 최학선(1985) 『향가연구』, 우주.
- 홍기문(1956),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 黃浪江(1991), 「慕竹旨郎歌 研究」, 『語文研究』 21, 語文研究會.
- 오쿠라(小倉進平, 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